

朝鮮時代 선비像

李章熙*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선비의 出處觀 |
| II. 선비의 概念 | VI. 선비와 言路 |
| III. 선비의 具備要件 | VII. 선비精神 |
| IV. 선비의 職分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儒敎道德의 실천만을 고집하던 조선시대의 선비가 바람직한 人間像으로 비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懷疑를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선비에 대한 관심이 人口에 膾炙되며 옛 선비를 肯定的으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뿐 아니라, 志操를 굽히지 않고 일생을 孤高하게 살다간 人士들을 옛날 선비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變節 無恥와 物質萬能의 그릇된 風土에서 상실된 人間性的의 회복을 위해 무엇인가 옛날 선비를 통해 배울 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알듯도 싶은 선비의 實體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아직 선비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깊지 못하여 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 아닌가 한다. 이를 다소나마 구명해보자는 의도에서 기왕의 필자의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선비의 人間像이 어떤 것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II. 선비의 概念

‘선비’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어느 때부터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世宗 25년(1443) 訓民正音が 창제된 이후 ‘士’와 ‘儒’의 글자풀이를 ‘선비’ 또는 ‘선브’로 표기한 것을 보면¹⁾ 그 이전에도 우리 글이 없어서 선비라고 표기를 못했을 뿐이지,

* 成均館大 教授, 朝鮮時代史

1) 『龍飛御天歌』, 『仁粹大妃內訓』, 『東國三綱行實烈女圖』, 『杜詩諺解』, 『訓蒙字會』, 『新增類合』, 『東國新續

‘선비’라는 우리말은 그 이전부터 불러졌음이 분명하다.

선비는 儒敎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선비는 儒敎를 國是로 삼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조의 선비가 사회계층으로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야 했다.

선비의 淵源은 유학의 전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三國時代에서 統一新羅에 이르는 시기는 佛敎와 道敎가 들어와 先來儒敎와 並存하면서도 先秦儒敎의 윤리적 면과 漢儒의 典章制度的인 면을 함께 갖추어 윤리규범과 정치행정이 유교적인 방향으로 성숙되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潛在했던 선비의 氣風은 차츰 微動하기 시작하는데, 三國에서 統一新羅에 이르는 이러한 시기를 선비의 萌芽期로 잡을 수 있을 듯싶다.

선비의 骨格은 萌芽期를 거쳐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본다. 물론 고려시대는 儒士보다 文士가 주를 이루었고 儒·佛이 並存하던 시대라 선비들이 불교에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 유독 六藝를 숭상하는 程朱學 전래 이후의 선비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비의 氣質속에는 士君子라든가, 小人에 대한 君子의 개념 등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性理學 전래 이전의 고려시대를 선비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비가 新儒學으로 무장하고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性理學 전래 이후 大儒가 다수 배출된 시기로 보아야 하겠다. 이때쯤이면 사회적 비중이 종래 文士에서 儒士로 전환하게 되며 崇儒斥佛로 士風이 크게 진작되게 되는데, 士風이 진작되는 麗末鮮初를 선비의 확립기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인가. 兩班[士族]의 자제이면 다 선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선비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선비가 되려면 우선 詩·書를 읽어 선비로서의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六經 중에서 一經에 능통하고, 六藝중에 一藝를 專門으로 할 수 있어야 되었다. 그러한 才能을 갖추지 못하여 弓馬나 익혀 武職으로 發身할 경우, 그들이 士族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선비로서의 具備要件을 결하였으므로 선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士族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士族이 모두 선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士出於農 而工商不與焉”(『定宗實錄』 卷3 定宗2年 庚辰 1月 己丑)라 하여 선비가 農에서 나올 수 있으나 工·商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도 선비로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선비가 될 수 있었다. 즉 선비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學德을 갖춘 하나의 人格體라 하겠다. 淸·濁이 다른 戚里를 선비신분에서 제외시켰음은 물론이다.

『三綱孝子圖』 중에 ‘士’와 ‘儒’의 훈민정음 풀이를 ‘선비’·‘선비’로 표기하고 있다.

Ⅲ. 선비의 具備要件

선비는 孔孟의 道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기준을 ‘才’보다 ‘德[인품]’을 더 우위에 두었다. 李德懋가 “夫所貴乎士 人品爲尙 材學其餘”(『靑莊館全書』卷20「刊本雅亭遺稿」卷8 成大中撰 拔)라 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조에서 才보다 德을 우선했던 것은 德治主義의 실현을 최상의 정치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才보다 德을 우위에 두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선비가 덕을 중시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선비는 德을 玉에 비유하였으며, 仁·智·義·禮·忠·信·樂의 일곱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선비는 ‘立德’·‘立言’·‘立事’의 三不朽가 있는데, 실상 그 德이 있으면 ‘言’·‘事’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德은 得과 같아서 道를 행하면 마음속에서 得이 있는 것이라 소위 言과 事는 心得의 나머지를 추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三不朽 가운데 立德이 주가 된다고 하였다.(『宋子大全』卷145「不朽堂記」)

李珣은 선비의 벗을 文友·宦友·道友 셋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선비의 벗은 셋으로 구분되니 翰墨의 자리에서 서로 즐겨하는 文友가 있고, 벼슬하여 친하게 지내는 宦友가 있고, 性理書를 講하는 道友가 있는데, 벗이라는 이름은 비록 하나이지만 벗이 되는 까닭은 같지 않다. 文友·宦友는 꼭 상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술잔을 나누며 친하다 하고 반드시 허물과 수치를 감춰주는가 하면, 才能을 褒彰하여 주는 것을 美德으로 삼고 꼭 契約을 修結하여 指天畫地하며 믿음으로 삼는데, 이 셋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혐의가 있는가 하여 들떠서 서로 만나도 마침내 길가는 사람같이 될 뿐이다. 道友 같으면 그렇지 않으니, 그 친함이 낮이나 눈맞대는데 있지 않고, 그 美德도 애써 推譽하는데 있지 않고, 그 믿음도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있지 않으며, 同志로서 친하며 責善으로서 美德을 삼고, 守道로서 믿음을 삼으니 뜻이 진실로 같다면 千年 전에 사람도 오히려 尙友로 대함이 可하거늘, 하물며 함께 한 때를 보내는 사람이라.”
(『栗谷全書』拾遺 卷3 送尹子固朝天序)

위의 내용을 보면 道友는 文友나 宦友와 비교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비로서 道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다.

선비의 집안은 꼭 家法이 있게 마련이며, 家法이 없으면 그 자손이 법도와 예의를 그려쳐서 마침내 그 世業을 기울게 만든다. 朋友는 道로써 서로 구하고 義로써 서로 화합하는 것이어서 선비가 취할 것은 道와 義에 있는 것이다. 道가 없고 義가 없는 交友라면 벗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니 벗이 좋아지 못하면 絶交함이 마땅하다.(『象村集』卷53 求正錄 참조)

成渾은 선비가 지켜야 할 道理와 家法에 대하여 선조에게 아뢰기를

“생각컨대 戚里의 사람들과 士大夫[선비]는 淸濁의 類가 다릅니다. 선비된 자는 스스로 지킴이 매우 엄격하여 그 汚蔑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과의 交結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臣은 先代 이래로 모두 士大夫의 이름을 얻어 家法이 전해오고 있으며, 신도 젊어서부터 修身의 義를 들어왔는데 戚里의 사람과 더불어 交結 附託함은 한 몸을 저버리고 德을 그르칠 뿐 아니라, 家門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家法과 修身의 義가 엄격함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牛溪集』 卷3 被論後自劾第一疏)

라 하여, 선비는 淸濁이 다른 戚里와 함부로 가까이 하는 것은 守身과 家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戚里는 선비계열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門閥家의 子弟들을 선비라고 부르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선비는 士君子와 같은 이름으로, 외롭고 배고픈 처지에 놓였어도 心事가 氷玉같아야 하는 것이다. 선비는 “몸을 닦아 행실을 깨끗이 하고 구차한 이득을 바라서는 안되며, 情을 다하고 實을 다 하여 남을 속이는 일을 하여서는 못쓰고 외롭지 못한 일을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며 事理에 어긋나는 이득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 것”(『仁粹大妃內訓』)이 선비의 취할 바이다.

선비의 행동거지는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예의에 벗어나도록 일을 해서는 안된다. 거동하면 반드시 예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하면 반드시 禮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하면 반드시 먼저 義를 떠올려야 된다. 그와 같이 선비는 禮와 義를 중시했다. 그런 까닭에 선비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금물이었다.

바른 선비라면 현세에서 뜻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며, 후세에 고귀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선비는 義를 위해 차라리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도 살아서 욕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벼슬을 얻지 못해서 빈곤한 생활에 허덕일지언정 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謙양 禮로써 자기자신을 지켜야 했다. 또 선비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이 지낼 때는 잡념이 생겨서 선비로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쉬운 법이니 선비의 本分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서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崔漢綺는 선비의 居處에 대하여

“선비가 거처함에는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동작과 위엄있는 儀容이 다른 사람의 感慕를 받아야 하며, 언사와 풍채가 다른 사람을 啓發시킴으로 行事의 조짐은 한가롭게 있을 때 나타나고, 도덕이 빛나는 것도 한가하게 지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仁政』 卷6 測人門6 相士以居)

라 하였다. 孔子가 말한 “心有所定 計有所守”(『孔子家語』 卷1 五儀解)가 바로 선비의 취할 태도였다. 時利나 保身을 위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은 선비의 마음가짐이나 지켜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

李德懋는 선비의 操身에 대하여

“선비는 마음 밝히기를 거울같이 해야 되고, 몸 규제하기를 떡줄같이 해야 한다. 거울은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기 쉽고, 떡줄이 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굽기 쉽듯이, 마음을 밝히지 않으

면 私慾이 절로 가리우고 몸을 규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절로 생기므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데도 의당 거울처럼 닦아야 하고 먹줄처럼 곧게 해야 한다.”

(『靑莊館全書』卷5「嬰處雜稿 戊寅篇」)

라 하여, 마음을 거울에, 몸을 먹줄에 비유하여 선비의 조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다.

李瀾도 선비의 操身에 대하여

“불은 본디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얼음이 어는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이 줄어들지 않고, 쇠가 녹을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이 더해지지 않는다. 선비 역시 굳건하게 自立하기를 꼭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淮南子』에 ‘까마귀가 우는 것은 꺼억꺼억하고 까치가 우는 것은 각각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들이 어찌 기후의 춥고 더움과 건조하고 습기찬데 따라 변하겠는가. 그러므로 선비도 일정한 의론이 있어야 하고 여자도 변치않는 操行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세상에 이익이 되는 말이다.”

(『星湖僿說』卷23 經史門 儒行)

라 하여, 선비의 操身을 불에 비유하여 불은 추운 날씨에도 그대로 열을 발산하고, 더운 날씨에도 열이 더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비가 自立하는 것도 꼭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선비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시했던 守則은 四維이다. 四維란 管子에 나오는 句節로서 禮·義·廉·恥를 가리킨다. 이는 선비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네가지 법도였다. 이 四維는 중국의 士大夫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비에 있어서도 늘 강조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선비들이 더욱 숭상했다.

四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一維인 ‘禮’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고, 二維인 ‘義’가 없다면 나라가 위태롭고, 三維인 ‘廉’이 없다면 나라가 전복되고, 四維인 ‘恥’가 없다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나라가 기울면 바르게 고칠 수 있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나라가 전복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으나, 나라가 멸망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으니, 이 四維 중에서 ‘恥’를 가장 경계하였다 (『管子』第1卷 牧民 第1). 따라서 선비된 자가 廉·恥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볼 것조차 없다고 하였다. 그러했던 까닭에 선비의 清廉은 여인의 淨潔과도 비유되었다.

선비들의 이러한 숭상은 지난 세월에 낡은 주장만이 아니며, 變節無恥와 物質萬能에 찌들은 오늘의 세태에 있어서도 龜鑑으로 삼아야 할 名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이 부끄러움[恥]을 모르면 못할 것이 없으니 말이다.

IV. 선비의 職分

우리가 一般的으로 알기에는 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고 在野에 묻혀서 책이나 읽으면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선비의 생활태도로 잘못 알고 있다.

麗末의 학자 李穀은 “幼而學 壯而行 斯乃業儒之義”(『東文選』第46 李穀撰 上政堂啓)라 하여, 선비는 어려서 공부하고 壯年이 되어 행하는 것이 儒學을 業으로 하는 사람의 옳은 길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비의 직분은 行道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뜻있는 선비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올바른 길을 행하는 것 - 志士所貴 直道而行”(『東文選』第2 無名氏 志士口與心 誓守死無二賦)이라 한 것으로 보아, 行道는 선비가 걷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선비가 벼슬을 멀리하려는 것은 현실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在野에서 숨어지내는 것이 지 선비의 본분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즉 신명을 바쳐서 道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선비된 자의 도리인 것이다. 宋時烈이 선비의 직분에 대하여

“身命을 바쳐 道를 행하는 것은 人道에 크게 바른 것이다. 隱居獨善하는 것이 어찌 君子[선비]의 바라는 것이겠는가”
(『宋子大全』卷143 梅隱堂記)

라 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따라서 ‘獨善其身’이 선비의 窮極的 目的이 아니며, 獨善其身하는 것은 선비가 때를 잘못 만났거나 벼슬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선비가 취할 태도라 하겠다.

許筠도 선비의 직분에 대하여

“선비가 벼슬을 구하는 것은 그 道를 행하고자 함이요, 道를 행하지 않고 한갓 榮利만을 탐내는 것은 선비가 아니다.”
(『許筠全書』「榿所覆瓿藁」卷11 文部8)

라 하여, 선비의 직분은 行道에 있음을 말하였다.

宋時烈은 선비의 行道에 대하여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임금을 잘 만나 道를 행하는 것이 제일이며, 선비가 道를 행하는 것은 농부의 밭갈이하는 일과 같아서 ‘行道’두 글자는 선비된 자로서는 모두 가당한 것이다. (中略) 선비가 벼슬에 나가는 것과 들어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헤아리든가 아니던 세상형편이 좋고 나쁘데 달려 있는 것이니, 나쁘다고 판단될 때는 들어앉고 좋다고 판단되면 나가서 道를 행하면 된다.”
(『宋子大全』附錄 卷15 語錄 李禪錄)

라고 하였듯이, 자기의 역량이나 세상형편에 따라 行道의 可否를 결정지을 문제라고 하였다.

李灝는 선비직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선비가 걱정할 것은 덕이 닦아지지 않은 것이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며, 학업이 넓지 못함을 걱정할 뿐이지, 말은 일이 없음을 근심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다.(『星湖僿說』 卷17 人事門 士風自重)

선비는 大義를 위해서는 그 뜻을 굽혀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殺身成仁의 길을 택한다. 그러므로 선비가 옳다고 주장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뜻을 굽히지는 않는다. 李珥가 “선비의 道를 구함은 그 뜻을 구함에 있을 뿐이다 - 求士之道 在於求其志而已”(『栗谷全書』 拾遺 卷3 序)라 말한 것은 선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뜻하는 것이다.

선비의 마음은 순수하고 정직해서 꾸밈을 일삼지 않는다. 위선이란 용납될 수 없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좇아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선비이다. 선비는 자기의 한 몸을 잇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다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 선비는 벼슬을 못하더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義를 저버리지 않고, 때를 만나 출세해도 백성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道를 이탈하지 않는다. 즉 선비는 그 본성을 잃지 않고 지조를 삼가서 지킨다. 선비라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있어 거처하되 時勢變轉에 따라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선비는 벼슬을 못해서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할지라도 그 뜻은 더욱 엄격하며, 그 절개 또한 더욱 뛰어나게 된다. 일시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지킴을 손상시켜 흠이 있게 하는 것은 선비라고 할 수 없다. 선비는 포부가 크고 강인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V. 선비의 出處觀

선비가 자기의 道를 행하자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그렇지만 선비가 벼슬에 나가는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 일단 벼슬에 나가면 자기의 경륜을 소신껏 펴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주저함이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선비가 취할 태도이다.

선비는 出處去就가 분명해야 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선비로서 信義를 잃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 曹植이 문인 金宇顒에게 이르기를

“내가 평생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자네는 그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지 않은가”
(『南冥集』 卷5 附錄 言行總錄 金宇顒撰 行錄)

하였고, 또 金宇顒과 鄭述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出處에 있어서 다소 보는 점이 있어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다. 士君子의 大節은 오직 出處 하나에 있을 뿐이다.”
(同上)

라고 한 것을 보면, 선비의 出處去就를 옳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준다.

金長生이 “선비의 出處는 사람의 大節 - 士之出處 人之大節”(『沙溪集』卷4 答金嶺問目)라 한 것도, 曹植이 말한 ‘士君子의 大節은 오직 出處 한가지 일에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점으로 보아, ‘出處’는 선비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선비 出處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선비가 벼슬에 나가고 아니 나가고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지를 일이 아니다. 벼슬에 나가는 것이 자기자신이나 국가에 공히 이롭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중앙정계의 상황이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분위기인지도 바로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벼슬하려면 朝廷에 나가는 것이며, 벼슬이 싫거나 벼슬할 기회가 오지 않으면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벼슬에 나가고 은퇴하는 것은 때를 만나고 못만나는데 달려있다. 벼슬에 나가 쌓아온 경륜을 펴 볼 수 있는 때가 왔는데도 隱居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벼슬에 나갈만한 때가 아닌데도 벼슬에 나아가는 것 또한 선비의 취할 바가 아니다. 선비의 出處에는 반드시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벼슬에 나갈 때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李珣는 선비의 出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저 참된 선비는 벼슬에 나가면 일시에 道를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熙皞의 樂을 갖도록 할 것이며, 벼슬에서 물러나면 萬代에 가르침을 남겨 배우는 자로 하여금 大寐之醒을 얻도록 해야 한다. 벼슬에 나가서 행할만한 道가 없고 물러나서 垂範이 될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참된 선비라고 자처할지는 몰라도 나는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

(『栗谷全書』卷15 雜著2 「東湖問答」 論東方道學不行)

우리는 위의 李珣의 글에서 참된 선비라면 벼슬에 나가서 행할 道, 즉 정치이념이 뚜렷해야 되고, 물러나서는 백성을 깨우치거나 제자들을 키워 萬代에 垂範이 될만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尹善道도 선비의 出處에 대하여

“선비의 出處는 진실로 구차하게 벼슬길에 나가서도 안되며, 또한 구차한 변명으로 물러나서도 안된다. 벼슬에 나가면 마땅히 利慾을 탐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물러나서는 의당 세상 일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孤山遺稿』卷4 上白軒相公書)

라고 하여, 出處를 분명히 하되 벼슬에 나갈 때는 利慾을 멀리하고 벼슬을 그만두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비는 벼슬에서 떠나더라도 늘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다.

그런데 선비라고 해서 출처거취가 모두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선비 중에도 學德이 높은 君子와 才勝德薄한 小人이 있기 마련이어서 君子와 소인의 거취가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군자는 벼슬에 나가는 시기는 서로 같지 않지만 물러갈 때는 행동을 함께 하는데, 소인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벼슬에 나갈 때는 함께 하나 물러가는 시기는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한 까닭은 군자가 벼슬에 나가는 것은 각기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에 벼슬에 나가는 때가 다르게 되며, 정치가 잘못 돌아가게 되면 ‘義’로 보아 벼슬자리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느끼는 까닭에 일시에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소인에 있어서는 뜻을 얻게 되면 이득을 먼저 생각해서 함께 벼슬자리에 물러나가게 되고, 비록 벼슬살이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되어도 구차하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물러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시기가 같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宋子大全』附錄 卷18 語錄 崔愼錄 下 참조)

小人들은 참된 선비라 할 수 없겠으나 그들이 선비행세를 하게 되니 진짜 선비인 君子는 결국 물러서게 되고 가짜 선비인 소인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다고 하여 현실과 관심을 끊는 것은 아니었다. 나라를 염려하는 근심은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道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 자기가 당대에 이루지 못한 것을 펼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門徒를 훈도하며 후일을 기약하게 되는 것이다.

VI. 선비와 言路

言論의 通塞이 國運의 進退와 직결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言路가 열려 있으면 표면상으로는 어수선하여 무엇인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듯 싶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士論(公論)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만, 言路가 막혀있고 보면 외형상으로는 조용히 무엇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朝野가 경직되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조선조 5백년을 놓고 볼 때 言路의 通塞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治世에 있어서는 言論이 활발하고 是非의 논쟁이 활기를 불러 일으켜 士論이 형성될 수 있었으나, 亂世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여 危急이 조석간에 밀어닥쳐도 누구하나 사론형성을 위한 시비논쟁을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中宗 때 趙光祖는 言路通塞의 중요성과 諫官으로 하여금 言責을 주관하게 한 이유를 왕에게

“言路의 通塞은 國運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言路가 통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막히면 어지럽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언로를 넓히는데 힘써야 하옵니다. 위로는 公卿百官으로부터 아래로는 閭巷市井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옵니다. 그러나 言責이 없으면 전부 들을 수 없는 까닭에 諫官을 두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한 것이옵니다.”

(『中宗實錄』 卷23 中宗10年 乙亥 11月 甲辰)

라 하여, 言路의 通塞이 治國安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선비들은 言路를 몸의 血氣에 비유하여 言路가 통하지 않는 것은 몸에 혈기가 통하지 않아서 병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았다. 그러한 까닭에 선비들은 왕에 거슬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득실을 면밀히 살펴서 쓸만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항상 언로의 개방을 주장하였다.

조선왕조가 일찍이 言官을 둔 것도 언로의 폐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나라에서 言官을 설치한 것은 본디 바른 말을 듣고자 함이었다 - 國家設言官 本欲聞正言”(『端宗實錄』 卷12 端宗2年 甲戌 10月 乙未)라 한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언론을 주도한 것이 在朝 선비나 在野 선비들이었다. 특히 벼슬하는 선비로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헌부나 사간원·홍문관 등 言論 三司의 관원들이었다. 이들이 언론의 책임을 맡고 公論을 바로 이끌어가는데 주력하였다. 여기에는 氣概가 필요하였다. 왕의 말 한마디로 생사가 좌우되는 시대에 그래도 할 말을 다해야 하는 것이 언관의 책무였다.

언관이 의당 왕에게 諫해야 될 말을 간하지 않고 주위의 눈치만 살피게 되면 도리어 바로 간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또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높은 벼슬아치나 宗戚이라도 규탄해야 할 일은 서슴지 않고 규탄했고, 왕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삼사의 언관들이었다. 이들은 선비 중에 선비라고 할 수 있는 빼어난 인물이었다. 삼사가 제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병들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렇다고 言權 행사가 삼사의 독점물만은 아니었다. 삼사의 관원에게 국가에서 언권을 책임지게 한 것은 틀림없었으나 다른 벼슬아치나 재야에 있는 선비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부여되어 있게 마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벼슬아치들 간에도 시비가 엇갈리기 일쑤였고, 특히 재상과 반대입장에 섰던 兩司(사헌부·사간원) 사이가 더욱 그러했다.

재상과 兩司 간에 서로 의견이 맞서는 것은 그 可否가 토론과정에서 是是非非를 가릴 수 있게 되고 公論이 정해지게 될 수 있어서 바른 政事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언로의 개방은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正論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正論을 실행하는 것이 治世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재야의 선비들은 상소를 통해서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재야 선비의 상소문이 중앙정계에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이 公論으로 이어지는 일도 허다했다. 문제는 在朝나 在野의 선비를 막론하고 누가 어떠한 正論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말이 지나쳐서 왕의 노여움을 사고 파직되거나 귀양가기도 하였으나, 선비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VII. 선비 精神

조선시대 선비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나라에서도 소중히 여기며 못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다. 선비는 사회적 특권을 받는 만큼 부여된 임무 또한 컸다.

그것이 설사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로부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비가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 정치는 정상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사회는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이것은 선비정신이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침묵을 지키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선비정신은 무엇보다도 '立志'에서 비롯된다. 선비가 立志 즉 뜻을 세우지 못하면 나아갈 방향감각을 잃게 된다. 孔子가 “不降其志 不辱其身”(『明美堂集』 卷16 「清隱傳」)이라 한 바, 선비가 그 뜻을 꺾이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은 선비가 지켜야 할 鐵則이며, 뜻을 굽히는 것은 그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李瀾은 선비의 '立志'에 대하여

“선비가 병폐로 여기는 것은 立志를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뜻이 정성을 다하고 돈독하면 어찌 배움에 이르지 않고 道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 (『退溪全書』 卷24 答鄭子中惟一)

라고 하였듯이, 선비가 그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立志가 선행되어야 했다. 선비의 뜻이 확고하면 正義를 위하여 두려울 것이 없고 公論을 그르칠 염려가 없다. 여기에서 선비정신은 발휘될 수 있는 것이며, 의리의 名分은 생명보다 중시될 수 있는 것이다. “선비가 위급을 당하면 목숨을 버리고 得을 보면 義를 먼저 생각하는 것 - 士見危致命 見得思義”(『論語集註大全』 卷19 子張 第19)이 바로 선비정신인 것이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면 그 몸을 버릴 수도 있다 - 士爲知己者死”(『史記』 勅客列傳 第26)라 한 것이 선비의 몸가짐인 것이다.

개국공신 鄭道傳은 선비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죽고사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죽음 알기를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는 名分과 義理를 위해서이다. 저 자중하는 선비들은 그 의리가 죽을만한 것을 당하면 아무리 끓는 가마솥이 앞에 있고 칼과 톱이 뒤에 설치되었으며 화살과 돌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고 예리한 칼날이 아래에 서리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부딪치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피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찌 義를 중히 여기고 죽음을 가볍게 여김이 아니겠는가. 과연 글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서술하여 書冊에 나타난다면 그 영웅스런 정성과 義烈이 사람들의耳目에 밝게 비치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것이니, 그 사람은 비록 죽었으나 죽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달게 여기고 후회하지 않는다”

(『三峰集』 卷4 鄭沈傳)

위의 鄭道傳의 말을 빌리면 선비는 義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며, 죽음을 택하는 것은 후대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 이름이 빛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義는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영광된 죽음을 바라며, 선비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선비가 國難을 당하게 되면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義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벼슬자리에 있는 선비는 나라에서 녹봉을 받아먹으니 의당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할 책임이 있겠지만 在野의 선비일지라도 벼슬에 있지 않다 하여 識字人으로 등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義로 보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成海應은 선비의 殉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선비가 殉死하는데는 혹 강개하여 스스로 울분을 참지 못한다거나 혹은 절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고 義를 위하여 죽는다는 데서 안도할 수 있는 것이다”
(『研經齋全集』本集 第2 卷33 風泉錄3 喬遊擊與子書跋)

우리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선비가 自裁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義라는 명분이 있는 까닭에 그것으로 慰安을 삼는 것이다.

國難을 당하여 선비가 義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모든 선비가 義를 지켜 목숨을 바쳤던 것은 아니었다. 司馬遷이

“날씨가 추워진 뒤에 松柏이 늦게 마르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혼탁해야 맑은 선비를 볼 수 있다”
(『史記』卷61 伯夷列傳 第1)

라고 한 句節은, 조선시대 선비에게 있어서도 매우 적절한 묘사라 하겠다. 선비들이 태평한 시대에는 修身整齊함이 모두 君子와 같아서 서로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세상이 혼탁하면 구별이 잘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옛날부터 선비들의 警句가 되었던 것을 보면 선비라고 해서 모두 고상한 선비정신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麗末에 이르러 확립된 선비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선비정신이 더욱 강조되었고 선비로서 선비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였으나 선비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각처에서 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전쟁초 무력한 관군을 대신해서 救國隊列에 앞장섰던 것은 곧 선비의 실천운동이었으며, 이러한 의병의 구국정신은 구한말 의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VIII. 맺음말—선비의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선비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겠기에 조선시대 선비像도 사람마다 달리 비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선비의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도 사람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는 선비의 긍정적인 면은 선비의 操身이라든가, 言論을 주도하여 士論(公論)을 이끌어간 그들의 氣概, 學問勉勵와 行道, 그리고 고결한 선비정신 및 國難에 대처한 선비의 자세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否定的인 면으로는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선비 典型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서, 身分差待의 當爲性·文弱과 工·商을 천시하여 산업능력을 저하시킨 점, 또 지나칠 정도로 復古風을 숭상하여 進就性이 결여된 것 등을 들 수 있을 듯싶다.

그런데 앞에 말한 선비의 긍정적인 면은 시대가 많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받고 이를 계승해야 할 중요한 무형의 정신적 유산이라 하겠다. 지금도 사람들이 조선조의 선비를 극구 찬양하는 것도 선비의 이러한 면면들을 두고 그러는 것일 것이다. 반면에 선비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당시 시대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俗儒·假儒·腐儒들의 비리·비행과 함께 사람들이 조선조의 선비를 酷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게다.

선비를 혹평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사람들은 대개가 선비의 긍정적인 면은 외면하고 俗儒·假儒·腐儒 등의 비리·비행만을 들추어 선비가 조선왕조를 몰락의 길로 치닫게 한 장본인인 것처럼 비판을 퍼붓는다. 서구의 騎士道나 일본의 武士道라 해서 다 좋은 면만 지녔고 또 그 道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을 리 만무하다. 선비의 부정적인 면과 비행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얼룩진 면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의 肯定·否定을 논하자면 의당 선비의 典型을 따져야 할 것이며, 그 장점은 취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의 道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선비 典型에 대한 否定的인 면과 俗儒·假儒·腐儒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무너졌거나 지난 일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미 前近代의인 死物로 역사 속에 묻혀버렸거나 힘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선비의 긍정적인 면은 선비들이 살던 조선시대와는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체제가 전혀 다른 사회로 변모했다고는 해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용해야 할 귀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시대 변화와 적절하게 조화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비 道를 ‘國民道’나지 ‘民族道’로 승화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